인권정책 공유 · 인권 보호 협력

'전북도 기관 · 단체 인권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분야별 협력 · 공동대응 등 논의

전북도가 도내 인권정책 공유 및 논의를 위한 '2021 전북도 기관 · 단체 인권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도가 도내 인권정책 공유 및 논의를 위한 '2021 전북도 기관 · 단체 인권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협의회는 도민 인권향상과 보호를 위해 도내 12개 기관 · 단체간 정책연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인권정책의 공유 및 의견수렴 등 소통의 장으로서, 매년 상 ·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와 함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적 약자 관련 참여단체를 보다 다양하게 구성, 인권증진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말 개소한 '전북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협의회 구성원으로 추가 확대해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첫 정기회의인 만큼 각 기관 · 단체별로 추진 중인 인권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들에 대해 서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의견 교환 등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표방한 '제1차 인권보호 및 증진기본계획(2017~2021)'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그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인권환경에 맞는 정책방향을 재설정해 인권행정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인권보호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 하기로 했다.

또한, 인권옹호활동 주체간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분야별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인권향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1 인권옹호자포럼'에 기관 · 단체별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참여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염경형 도 인권담당관은 "실효성있는 인권정책 수립 및 도민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도내 기관 · 단체와의 정책공유 및 다양한 의견 수렴 뿐만 아니라, 도민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때 가능할 것"이라며 "전북도 기관 · 단체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해 도민 인권 보호와 인권인식 개선 확산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국 시 · 도 단위중 세 번째로 인권전담기구를 설치, 인권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 응원 릴레이 캠페인 동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보건 · 의료, 돌봄서비스, 택배 · 배송, 환경미화, 여객 · 운송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소셜 릴레이 캠페인이다.

한국노총 전북본부 권기봉 의장의 지명을 받은 송하진 도지사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이라는 팻말을 든 사진을 SNS에 올리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도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애쓰시는 필수노동자분들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표시했다.

도내 필수노동자는 보건 · 의료, 돌봄, 환경 · 미화, 운송 · 배달 등 4개 분야 19개 업종에서 7만6,960여 명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전북도는 정부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과 연계해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지사는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소셜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과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송병주 이사장, 전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김이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지목했다.

/유호상 기자

복지부 '안심버스 운영사업' 공모 선정

전북도, 8개 시 · 도중 최고액 국비 5억원 확보

전북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안심버스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심버스 운영사업'은 2021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8개 시 · 도를 선정해 총 28억원을 지원하는데, 전북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해 8개 시 · 도중 최고액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는 재난현장 또는 취약계층 거주지 등을 방문해 심리상담, 정신건강평가, 우울검사, 대처교육 등을 제공하는 정신건강 서비스이다.

집중호우나 산불 등 재난경험자들의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신적 외상을 조기에 발견해 일상생활의 조속한 복귀를 돕고 사회적으로 단절된 장애인 · 노인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선정된 안심버스 5대는 해당 지자체에서 구입 · 개조 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 ·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안심버스 1대를 배정해 10개 시 · 군의 정신건강 심리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전주, 정읍, 남원, 고창 4개 시 · 군은 안심버스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체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심리상담 1만3,433건, 정신건강 정보제공 2만 880건, 기관연계 96건 등의 심리지원을 추진했으며, 올해부터는 안심버스 운영으로 심리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는 도민들의 심리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내 알가공품 안전성 검사 '모두 적합'

도 동물위생시험소, 11개소 대상 식중독균 등 미생물검사

도내 알가공품의 안전성 강화 필요성에 따라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도내 알가공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유통 직전의 생산품을 직접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달걀 가격 상승으로 깨진 계란 등 유통에 부적합한 계란이 불법 유통되거나,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특별 수거검사가 실시됐다.

수거 제품은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을 비롯해 일반세균수과 대장균군의 오염여부를 검사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통해 알가공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미생물 오염을 줄이기 위한 위생관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운영중인 알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검사는 업체에게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로써 차후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험소는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가공업체를 비롯한 여러 축산물가공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소통 행정의 통로 역할과 코로나19 시대 업체의 불편사항을 함께 해소하는 창구 역할도 할 예정이다.

이성재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도 수시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내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지역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도 · 새만금개발청 · 군산시 · 농어촌공사 · 전북테크노파크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투자협약… 태양광발전 유지보수 담당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 5개 기관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에 힘을 모았다.

도는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테크노파크와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내 2.8GW 규모의 태양광발전 유지보수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사업은 태양광 산업이 점차 확대 · 발전함에 따라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본 사업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등 5개 기관이 협업으로 추진하며, 사업비 121억원을 투입해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공간 신축, 유지보수 인력양성 교육, 기술지원 장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인력양성센터는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에 부지 1,653㎡ 규모로 건립되며, 올해 11월에 착공해 2023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를 새만금 산단에 구축함으로써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인력을 확보, 기업수요에 맞춘 전문인력양성으로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국제행사 동향 · 유치사례 공유회

전북도가 국제행사 발굴과 유치,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국제행사 동향 및 유치사례 공유회'를 가졌다.

유치사례 공유회는 도내 국제행사 관련 10여 개 기관이 참석해 전북도 국제행사 유치 방향 토의 등 기관별 유치사례를 공유, 도의 지원을 활용한 국제행사 유치 콘텐츠 개발 등 전북도 발전을 고민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도는 발굴된 안건에 대해 행사유치 필요성 검토, 추진방향 협의, 관련 기관 · 단체 유치활동 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21 - 531호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 · 공고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 공고 합니다.

1.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③	자동차 정류장	공영차고지	하모동 70-101 일원	하모동 607 일원	24,918	갑) 1,812	23,106	'14.4.24	

   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자동차 정류장	· 위치: 하모동70-101 일원→하모동607 일원 · 면적: 24,918㎡→23,106㎡ 갑) 1,812㎡	• 농소 - 하모간 우회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도로구역과 중첩되는자 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시설 일부구역을 제척하고 시설규모 변경에 따른 부족한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자 공영차고지 서측부를 확장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관계도서 : "실음생략"
3. 열람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정읍시 도시안전국 도시재생과, 교통과
5. 의견제출 :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도시재생과(063-539-5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본 열람(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26일 정 읍 시 장